

요식업계의 핫키워드, 고품질 유지방

청두지사

중국 요식업계의 핫키워드

- 유제품 시장에 고급화 물결이 일고 있다. '고품질 유지방'이라는 단어가 올해 말 중국 요식업계의 핫키워드로 등장한 것이다. 중국 해관의 수입 데이터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중국의 유지방 크림 수입량은 급속도로 증가해 연평균 성장률이 50%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 2016년 유지방 크림의 수입량은 8만6천 톤, 2017년은 12만 톤을 기록했다. 또한 유지방 버터와 최근 몇 년 동안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크림치즈는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이 각각 21%와 25%에 달했다.

끊임없이 업그레이드되는 베이커리 시장

- 유제품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중국 베이커리 시장은 줄곧 전망이 밝다.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12.8%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 베이커리업 종사자에 따르면 크림 케이크는 판매가격에 따라 사용하는 크림의 종류도 달라 저가의 케이크는 마가린을 사용하고, 가격대가 있는 케이크는 혼합크림을 사용하며 순 유지방 크림도 있다고 말한다. 수입 휘핑크림으로 만든 케이크는 맛있고 건강하지만 그만큼 가격도 비싸 일부만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수입 유제품 분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뉴질랜드의 가장 큰 낙농기업인 폰테라의 한 전문가는 고품질 유지방화를 추진하는 것은 폰테라의 중국 시장에서의 중요한 전략 중 하나로, 그동안 쌓아온 경험으로 오래된 브랜드는 점차 업그레이드하면서 전자상거래에 더욱 치중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치즈 밀크폼을 얹은 시차(喜茶)

소비 고급화 추세에 맞는 시장 공략

- 밀크폼티를 대표로 하는 신식 차 음료 시장과 대량 자본으로 커지고 있는 커피 시장은 단번에 고품질 유지방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판도가 바뀌었다. 치즈 밀크폼을 주력상품으로 내세운 시차(喜茶), 이커우차(一口茶), 나이쉐더차(奈雪的茶)와 직장인들의 커피 선택에서 우선순위를 목표로 하는 럭킨(瑞幸)커피는 모두 유명 브랜드로서 안정적인 공급망을 가지고 있다.
- 중국의 소비 고급화는 수입산 크림치즈, 휘핑크림 등 고품질 유지방 제품 역시 트렌드화 시키고 있다. 특히 중국 베이커리 시장 및 프랜차이즈 커피, 차류 시장의 급격한 발전은 순식간에 고품질 유지방류의 인기를 몰고와 중국의 소비자들은 아주 쉽고 간편하게 밀크티 등 다양한 제품에서 일상적으로 고품질 유지방을 즐기고 있다.
- 중국에 진출하려는 국내업체들은 가격경쟁력보다는 제품의 질을 중점적으로 부각시켜 1등급, 혹은 프리미엄 원료로 만든 고품질 유제품이라는 점을 어필한다면 좋을 것이다.